

經濟發展과 企業成長을 위한

企業人의 마음가짐

경제 과학심의회 상임위원 朱 源 博士

人間이 다른 生物과 區別되는 것은 自體의 價値觀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價値觀은 固定된 것이 아니고 社會環境變化에 따라 變移適應할 수 있는 能力이 賦存되어 있다는 點이라 할 수 있을까 한다.

그런데 70年代를 흔히들 轉換의 時代라 하지요 轉換의 特徵이 무엇일까? 等質化·劃一化와 反等質化의 갈등現象으로 規定할 수 있을것 같다. 資源不足을 起爆點으로 하는 全世界經濟의 不況과 인플레이의 회오리바람도 그 때문이고 고고와 長髮과 核家族으로 表現하는 皮相의 外來樣式이 自己抑制과 체통優先의 印象的 傳統과 不相容인 文化的 갈등도 그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뿐일까 學問理論과 宗教哲學의 理解마저 眞부化 乃至 變化하고 있는 感이 없지 않은 것이 오늘 的 現實이다.

經濟發展하면 은 世界가 通貨·交易·資源等으로 뒤범석하고 있지만 多量生産體制를 갖춘 오늘에는 大衆消費패턴이 問題의 核인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只今 消費패턴의 特徵은 37억 世界人口 검은사람·누런사람·붉은사람을 가림할 것 없이 모두가 西歐化 해가고 있다.

衣·食·住 그 어느 것이고 西歐式을 본따지 않으면 사람다운 生을 營爲할 수 없는 境地에 이르고 있다.

韓國도 例外는 아니다. 아마 造物主는 寒帶·溫帶·熱帶에서 各己 살수 있는 自然條件을 마련했을 텐데 이렇게 消費形質이 外通수로 몰아닥치고 보면 資源不足이 現顯化 되는 反面 地域 資源活用이 뒷전이 될 것은 不可避할 뿐 아니라 西歐 또는 그와 類似한 地域以外的 地域의 浪費

는 해야될 수 없을 것이 아닐까 이리하여 先進國은 永永 固定化 하는 것은 아닐까 机憂이기를 바라지만 어딘가 숨통을 터야 할것 같다.

事實 世界經濟를 리드한 것을 뒤돌아 보면 19世紀는 蒸汽機關으로 英國이 리드했고 20世紀는 自動車工業으로 美國이 21世紀는 누가 할까 아마 中樞産業은 테레고무니케이션이 아닐까 蒸汽機關에 依한 鋼船이 量産體制를 確立하여 그 많은 極地工業을 廢墟로 몰아 넣으면서 消費 西歐化의 기틀을 構築했고 自動車工業이 그 많은 地域輸送手段을 廢物化 하면서 生活西歐化에 迫車를 加했다.

科學技術은 이 過程을 加速하는 一便倒方面에만 集中되어 地域資源活用に 눈돌릴 餘暇가 없었고 至極히 冷徹해야 할 文化思潮亦是 2次大戰이 몰아온 貧困打開에 執念하여 이 過程을 부채질한 것이다.

世界消費秩序變革의 推進力中樞는 多國籍企業이었다. 多國籍企業이 도마위에 놓인 것도 그 때문이다. 요지음 國際機構에서는 新經濟秩序가 論議되거니와 그것도 明確히 두갈래가 있다. 하나는 資源國權을 主軸으로 하는 第3國思考이고 들쭉는 國家主義範疇에서 國際協力으로 既存消費秩序를 衿호하려는 先進國思潮로 要約될것 같다. 쉽사리 平行線을 調和할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의 境遇 既存秩序의 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오히려 選擇의으로 與件에 便乘하는 것이 經濟發展이나 企業經營의 淸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要는 眞念으로 불배 等質化와 反等質化 갈등의 平衡點 摸索을 어디서 찾느냐 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世界價值觀變化에 對한 適應力이 다 할가 재빨리 適應하는 나라가 繁榮하고 재빨리 발맞추는 企業이 成長할 것이다. 適應은 사람이 한다. 資本도 아니고 機械도 아니다 來日의 經濟나 企業은 그 어느때 보라도 사람에게 依存한다해도 큰 잘못은 아닐성 싶다. 企業을 判가름하는 사람은 企業家와 經營者이다. 巷間에는 資本과 經營의 分離를 理想相이라하는 말도 있다. 그러나 經營者는 企業家가 아니다.

企業家라는 사람은 自身이 새로운 經營着想을 構想하던가 또는 남의 훌륭한 考案을 採擇하는것은 勿論 變化하는 새로운 社會에 適應하고 새로운 技術樣式을 實現하기 爲하여 때로는 冒險마저 무릅써야 한다. 이러한으로써 繼續의으로 부닥치는 社會的 負擔과 困難에도 屈하지 않을 뿐 아니라 自己生命을 企業에 直結시킬 수 있는 資質을 가진 사람이다. 由來로 資本主義經濟社會는 不斷이 成長과 變化를 可能케 하는 社會이다.

變化없는 發展이 있을 수 없는 것이 資本主義經濟의 하나의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社會制度에서는 企業家를 繼續 輩出하여 一定數의 企業家를 體制內에 保有할 수 있게끔 管理하는 것이 國民經濟發展의 關鍵인 것이다. 政府가 企業家를 尊重하는 것도 그때문이었다.

開途國經濟社會는 전망·질서·체념·不信이 많은 것이 常例인것 같다. 機會가 많은 一面 機會捕捉이 傳統社會概念으로는 一種의 運數로 보기쉬운 까닭이다. 韓國과 같이 急速한 經濟發展 社會일수록 그런 傾向이 많다. 이때 즐겨 쓰는 말이 貧富格差이거나 韓國은 所得格差의 世界 ranking이 16位로서 그리 甚한 社會는 아니기는 하나 企業家는 社會潮流를 피부에 담은 私生活克己가 要請된다면 어찌 할가. 經營者는 本質的으로 是 企業管理者이다. 많은 先進國企業이 經營者支配下에 있고 經營者中에도 많은 企業家的 機能을 遂行하는 사람이 있는 듯 하나 經營者가 企業官僚의 性格을 脫出하는 것을 一般化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韓國 現段階가 더욱 그럴것 같다.

우리나라도 大企業이 生成하고 있다. 全世界 大企業에도 ranking하고 있으니 반겨야 할 일이다. 大企業일수록 運營의 效率化는 企業家的使命과

經營者의 機能의 結合이 分水嶺이 될 것이다.

사람의 能力에는 限界가 있다. 企業家가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어야 발퍼고 잘 수 있다면 그것은 企業家的資質의 未洽이라 할 수밖에 없다 大概의 境遇 經營者는 伶俐하고 實踐技術이 있는 까닭이다. 美國의 會長과 社長制度는 그 先驗이 아닐까. 「그룹」이니 系列企業이니 하는 企業集團이 大企業의 一般의 形態라 하는데는 疑問이 감돈다. 連關企業集團은 不可避하다 할지라도 財閥企業集團은 再考할 餘地가 多分이 있는 것 같다. 「테크노스트락추어」論도 있기는 하나 이런 形態가 企業家輩出의 障壁이 될 可能性이 있음은 勿論 企業經營의 複雜高度化에 付隨되는 企業自體의 浪費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으로써이다.

企業家와 經營者의 믿음의 結合이 이루어지면 企業을 主軸으로하는 人間能力 極大化는 自動的으로 풀려나갈 것으로 期待해도 無妨할 것이다. 只今 政府와 企業은 한덩어리가 되어 技能工의 養成에 全力投하고 있고 教育은 漸次 實社會要請에 따라 實用教育으로 轉換하고 있으며 勤勞大衆의 保護政策도 漸次 軌道에 오르고 있다. 問題의 焦點은 企業家와 經營者가 價值觀變化의 方向을 正確히 把握하고 그에 對處하는것 뿐이라 하겠다.

人間問題에 있어 우리는 人間能率增大라는 積極的面에만 執念해 왔다. 또 이제까지는 그것으로 足했다. 그러나 只今부터는 人間浪費의 防禦라는 消極的面을 疎忽히 할 수 없는 段階에 접어들었다. 企業家·經營者·技能工 할것없이 모두가 體得한 經驗과 知識을 活用하는 壽命을 길게 하자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自然環境問題이고 衛生環境問題이다. 全體의 課題이기는 하나 加害者가 被害者라는데서도 企業이 先頭에 서야 할 것이라 하겠다.

우리經濟는 發展하고 企業은 成長하고 있다. 그 原動力은 資本도 아니고 資源도 아니고 사람 뿐이다. 持續의인 發展과 成長을 爲해서는 不斷한 人間養成과 開發에 力點이 놓여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제12회 인간개발경영자 조찬회에서 (편집부)